

# 철도공단, 철도 시스템 개량사업 5천530억원 신규 발주

“작년 대비 55% 확대...안전한 열차 운행 환경 조성”



김상균 이사장

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전기·신호·통신 등 철도 시스템 개량 사업에 지난해보다 55% 증가한 5천 53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. 열차 이용객은 많지만 노후화한 분당선(선릉역~오리역), 일산선(지축역~대화역), 과천선(선바위역~금정역) 등 수도권 광역철도 3개 노선을 개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노후 전기 설비 교체 등 1천 5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다. 경부고속철도 천안~대전 구간 전기·통신 분야 개량 공사를 9월에 발주하고, 경부선 신동~부산 구간 신호 개량 공사와 호남선 익산~목포 구간 통신

개량 공사 등 총 144개 시스템 개량 사업도 발주할 예정이다. 공구별로 분할 발주해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, 장애인이나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물품을 일부 구매할 계획이다. 김상균 이사장은 “국민이 안전하고 빠른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량 사업을 확대할 것”이라며 “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 ▼